비대면 안심관광지 임실 구담마을

한국관광공사 전국 25선 중 선정… 관광 ·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

임실군 덕치면 섬진강 구담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겨울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됐다.

임실군 덕치면 섬진강 구담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겨울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여행·가족단위 테마관광지, 자연환경이 중심인 관광지, 겨울테마에 부합한 관광지로 도내에서는 임실 섬진강 구담마을과 남원 지리산 천년송이 포함됐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구담마을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운 매력을 뽐내며 관광과 사진촬영, 드라이브 코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소다.

봄에는 천담~구담까지 3km 구간에 활짝 핀 희고 붉은 매화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섬진강 길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어 자전거길과 걷기길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1998년 개봉한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임실군의 숨겨진 보석 같은 관광지이다.

이번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을 통해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겨울철 섬진강 자연풍광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담마을 외에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와 성수산,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이 코로나가 바꾼 자연친화적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대표 관광지들의 관광객 수가 급감한 가운데 임실군은 되려 관광객이 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안심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와의 공동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인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와 짚라인, 스카이워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옥정호의 비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관광지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힐링 관광지로서 임실군의 매력을 증대시켜 나가겠다"며 "안전한 여행문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시민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남원시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해 사건 · 사고 신속 대응

남원시가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시민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업무를 시작한 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보호, 차량과 생활방범 및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감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 CCTV 910대로, 경찰관 2명과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 시민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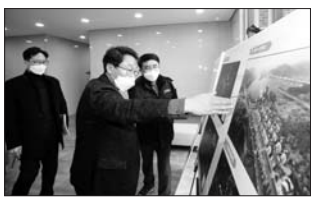
그동안 관제실적을 보면 차량 범행, 청소년보호, 시민의 안전 및 재난 관련 총 224건의 관제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남원 IC, 청소년수련관 등에 차량번호 인식용과 방범용 장비와 노후 CCTV 교체 및 관제가 필요한 장소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일 머니투데이,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엠아이가 전국 지자체 155개를 대상으로 측정한 2021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남원이 전체 6위를 차지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중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정덕량 안전재난과장은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영민 임실부군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김영민 임실 부군수가 관내 주요 핵심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신속한 군정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 부군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핵심사업장 및 운영 시설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올해 재정 신속집행에 대비한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 점검에 나섰다.

먼저 21일에는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섬진강댐, 옥정호에 이어 성수산 산림생태관광지를 방문했다.

이어 22일에는 농식품 유통활성화 중심지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인 오수면을 비롯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군 핵심사업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임실군 핵심특화자원인 섬진강 옥정호-성수산-임실치즈-반려동물로 이어지는 명품 관광벨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과 함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이어갔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장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빙기 전까지 공사현장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줄 것과 공사중지 해제 이후의 재정 신속집행에도 박차를 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영민 부군수는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군정 중점시책과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관리 지원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가 출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증을 통한 장애발생 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지원, 더불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든 출생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한다.

특히,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이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7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의료비도 지원한다.

▲신청자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남원시 보건소 1층 모자상담실에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063-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사랑의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21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등 30여명이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헌혈 참여자가 급감하면서 이에 따른 혈액 수급 안전화를 위해 뜻을 모아 동참하게 된 것이다.

헌혈에는 사전에 참가자 전원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김종수 예방안전팀장은 "코로나19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통한 나눔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캠페인 전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안전관리과, 임실읍,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실터미널과 시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식당 5인 이상 방문 금지, ▲2m 이상 거리두기, ▲되도록 집에 머무르기 등을 홍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되며 일부 수도권 등에서는 2.5단계로 격상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다.

심민 군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이환주 남원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남원시는 지난 22일 이환주 남원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우선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며, 이 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남 밀양시장과 남원경찰서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이환주 시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됨에 따라 어린이보호 최우선 문화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이 지난 21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고자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의장의 이번 챌린지 동참은 심민 임실군수로부터 캠페인 지명을 받아 진행됐다.

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임실군의회가 앞장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임실을 만들겠습니다"는 메시지로 자치분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임실군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임실형 자치분권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군민들과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공감과 기대감 확산을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을 SNS를 통하여 게재한 후 지명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